선풍 진작 중심지 '성담사', 대작불사 회향

남해 성담사, 11월 28일 낙성식 · 회향법회 봉행

총 1만 2000평 규모 가람
종정 진제 스님 선풍 선양
조계종 원로스님 대거 참석

성낙두 경남지사장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사진 왼쪽 세번째)를 비롯한 주요참석 내빈들이 회향법회서 타종하고 있다.

조계종 선풍진작을 위한 대작불사가 성료했다. 남해 성담사(주지 도민)는 11월 28일 성담사에서 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를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동화사 회주 의현 스님,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대원 스님, 명예원로의원 밀운 스님, 혜승 스님, 원명 스님, 성파 스님, 지성 스님, 법산 스님, 무공 스님, 자광 스님, 지환 스님, 주호영 국회의원, 장충남 남해군수 등이 참여했다.

법회에 앞선 식전행사로는 민족화합 조국평화통일 대범종 타종식이 진행됐다. 대구불교합창단과 불광사합창단의 축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위시한 주요내빈들의 타종 등을 진행했다.

법회에서는 삼귀의와 보현행원, 반야심경 낭독, 주지 도민 스님 인사 및 경과보고, 내빈 소개, 청법가, 입정, 종정 진제 대종사 법어, 총무원장 원행 스님 격려사, 대원 스님 격려사, 회주 스님 인사말, 주호영 국회의원 인사말, 표창패 및 공로패 시상, 축가 등이 진행됐다.

성담사 주지 도민 스님은 이날 "종정 진제 예하께서는 항상 산문을 열어 놓고 출가자 재가자 차별 없이 수많은 수행자들을 재접하고 지도하고 있다"며 "특히 2011년 미국 법문 후 세계 유명인들의 참선지도 요청이 많았다. 모든 이에게 참선교육을 하기 위하여 진제선 세계화회를 건립하고 진제선 총본산 성담사를 창건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민 스님은 "2011년 성담사에 터를 보시고 2018년부터 불사를 시작하여 2018년 2월 다리를 놓고 2019년 4월 개토식을 했다. 이후 공양실을 시작으로 요사채, 염화실, 관세음보살좌상, 대웅전, 선림선원, 극락전, 종각, 국민선원 등이 완성돼 금일 낙성 회향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성담사 면적은 도량과 뒷산, 앞 저수지 등 총 1만 2000평 규모다. 성담사는 선림선원 개원 후 하루 13시간 정진으로 1년 결사가 시작됐다.

진제 대종사는 "남해에 참선도량 성담사를 창건한 목적은 모든 인류가 참선을 통하여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며 "인간의 심성을 계발하지 않고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축사로 "남해섬 천혜의 정진도량이 낙성돼 경하드린다. 부산에 해운정사를 도심 속 수행도량으로 일궈 선풍을 널리 펴신 데 이어 성담사 불사로 한걸음 더 나아가 혹독하고 철저한 정진을 하시고 계시다. 불조의 혜명을 잇는 원력대불사이니 함께 정진하고 외호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자"고 서원했다.

18년간 이어진 자비나눔 눈길

소원정사 연꽃향기자비나눔 개최

도계 스님 2006년 나눔 발심
각양 각층에 자비의 쌀 전달



소원정사 도계 스님을 비롯한 불자들이 자비의 쌀을 전달하고 있다.

2006년 광주 남구에 조그만 사찰에서 기도정진하던 도계 스님은 만행 과정에서 80세가 넘는 한 보살의 집을 방문하게 됐다. 저녁공양 때가 되자 보살은 라면 1개를 꺼내 남편과의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어려운 이웃을 본 도계 스님은 그 길로 연꽃향기자비나눔 단체를 설립했다. 18년이 지난 11월 30일, 소원정사에서는 연꽃향기자비나눔 전달식과 시상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도계 스님을 비롯해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신광사 주지 동현 스님 등 30여 불자들이 참석했다.

연꽃향기자비나눔은 올해 모연한 쌀 2만 7000kg을 전달하고 몸이 아픈 스님들의 의료비로 500만 원, 어린이청소년 포교기금으로 500만 원 등을 함께 지원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서구청에 쌀 3800kg, 겨울의류 30벌, 남구청에 쌀 3800kg, 겨울의류 30벌,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에 500만 원 지원금과 겨울의류 20벌, 빛고을나눔나무에 쌀 1000kg과 승보공양비 500만 원이 전달됐다. 전달품은 6000만 원 상당이다.

도계 스님은 "앞으로 10만 가마니가 되도록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추위 잊게 하는 따뜻한 김장나눔

전주불교聯 · 진안쌍봉사 등 소외계층 자비나눔 눈길



전북 불교단체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장나눔에 나섰다. 전주불교연합회(공동대표 덕산, 금선암 주지)는 11월 26일 자연음식문화원 실습실에서 김장김치 400kg을 담가 불교복지시설인 송광 정심원(원장 이경주), 금선백련마을(원장 김찬우), 전주서원노인복지센터(관장 동찬), 이기산 정각복지센터(대표 일행) 등에 전달했다.

연합회 공동대표 덕산 스님은 "어려운 시기지만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 지역의 어려운 곳을 도와야 한다"며 "매년 김장김치를 기다리는 복지시설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후원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대원)도 12월 2일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르신 나눔에 앞장서는 '선배시민 봉사단'이 담근 김장김치 1500포기가 복지관 경로식당과 관내 저소득층 97세대에 전달됐다. 김치는 '선배시민 봉사단'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직접 전달했다.

고창군사회복지시설장 대원 스님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서, 함께 상생하는 따뜻한 복지 실천을 펴겠다"고 말했다.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도 11월 28일 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 진안쌍봉사 만복의소리 봉사단과 함께 독거어르신 35가구에 김장김치 440kg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생의 석불상 조성, 내생 행복으로"

[인터뷰] 불교미술대전 대상 수상한 김용암 불자



"40여 년 간 석불과 석탑 등 불교 작품활동을 해온 보람을 느낍니다. 인연이 닿는다면 30~40자정도 되는 대형부처님을 조성해보고 싶습니다."

김용암 불자<사진>는 맥반석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을 표현한 '49일간의 행복'으로 제31회 불교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그는 "작품을 완성한 지는 몇 년 됐지만 크기 제한이 있어서 출품하지 못하다가 후배들의 강력한 권고로 출품한 것이 대상 수상의 영예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대상작인 '49일간의 행복'이 탄생하기까지는 2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20여 년 전 전남의 한 공사장에서 흙구덩이에 묻힌 돌을 발견한 그는 범상치 않은 돌의 모습에 부처님을 조각하고 싶다고 마음먹게 됐다. 작품구상에만 수년이 걸렸고 고행과 정각의 모습을 함께 표현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작업실에서 1년 6개월간 작업이 진행됐다. 그는 부처님이 앉은 좌대를 익산 황등석을 활용해 표현하는 등 석재 고유의 색을 이용했다. 질좋은 석재가 생산되는 익산에 공방을 갖고 있는 점이 파격적 시도의 바탕이 됐다.

불교미술대전 대상 수상은 수십년간 석공에 기술 뿐만 아니라 신심이 작품 속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불교를 접하면서 행복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수행과 공부에 역주했다 점점 그의 작품 속에는 이러한 신심이 투영됐다. 그는 익산 백운사 9층석탑, 공주 원효사 부도탑, 전주 대광사 아미타불, 전주 선린사, 익산 삼불암 등 불상과 불탑을 조성했다.

불교미술대전 대상이라는 큰 영광을 안았지만 그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다. 바로 남은 과제는 3~40자 크기가 되는 초대형 석불상을 조성하는 것이다.

"49일간의 행복까지 20여 년이 걸렸다면 건강만 따라준다면 이젠 남은 생을 걸고, 내생의 행복까지 정진하고 싶습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울산불교환경연대 환경 톡 콘서트 개최

11월 26일 서울주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울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천도, 백련사 주지)는 11월 26일 서울주문화센터 대강당에서 환경 톡(TOK) 콘서트를 개최했다.

'지구야 미안해, 우리의 사과를 받아줘'를 주제로 열린 이날 콘서트에는 상임대표 천도 스님을 비롯해 정토사 덕진 스님, 백련사 회주 대혜 스님, 석남사 일영 스님, 여여선원 효암 스님, 법왕사 혜경 스님, 황룡사 황산 스님, 이선호 울주군수 등 1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콘서트 식전행사는 나모라 황룡사어린이합창단의 '말의 향기' 합창을 시작으로 인사말, 격려사, 축사, 감사패 전달, 자비쌀 나눔 등으로 진행됐다.

1부 콘서트에서는 가수 라마와 천도스님, 박은정 서경대 교수가 진행하는 토크쇼가, 2부 공연에서는 김권하의 핸드팬 연주, 에코밴드 요술당나귀의 카페라떼, 룬디마틴의 슈퍼스타 공연 등이 이어졌다.

상임대표 천도 스님은 "이번 콘서트는 울산지역 활동가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라며 "이날을 계기로 사회에 따뜻함을 불어 넣어 주길 기원한다. 생활 속 환경 지킴이가 되자"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체탈도첩 공고

귀의삼보 하옵고 존경하옵는 각종단 종정예하와 총무원장님, 그리고 제방의 고승대덕 선지식 큰스님들께 스승을 배신하고 일탈한 제자들의 체탈도첩을 널리 알고져 합니다.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능욕하고 스승의 명예를 실추시킨 18명의 체탈도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탈도첩 명단

경주 대원사 주지 유지연(운혜원정)
울산 도현사 주지 유의순(백화도현)
부산 연등사 주지 전세웅(혜각법성)
거제 칠보사 주지 이옥석(혜운)
서생 혜림사 주지 혜림
울주 마하사 주지 김봉규(현광혜오)
진주 현덕사 주지 김형권(현봉덕오)
대구 미륵사 주지 이점용(현승)
마산 약명사 주지 장이용(법상)
밀양 금궤사 주지 김예태(현강경오)
부산 반야선원 조인현(철범유심)
포항 원각사 주지 박준규(혜보화성)
광양 달마사 주지 신보주(성종)
부산 여래사 주지 표영민(현법)
양산 비로암 주지 황의철(현각월오)
울주 청송암 주지 김춘겸(혜암도일)
문경 룡화사 주지 안복수(혜심)
광양 용운사 주지 정상례(서정)

2021-10-27일자 대원불교조계종에서 탈종한 현광당 혜오는 총무원장이라는 직책으로 스승을 속이고 능욕한 죄에 대해 겉으로 참회 하는척 하며 당분간 시간을 벌어서 사형, 사제 17명과 함께 **대한불교 대승조계종** 이라는 종단을 만들어 나갔으며, 종정인 운혜원정도 법스승을 배신하고 사제들을 부추겨 함께 나가 그 종단에 종정이 되었는바,
본 종단에서 스스로 탈종한 18명은 대원불교조계종에서 받은, 사미(니),비구(니), 종덕(현덕), 종사(명덕), 대종사(명사). 모든 수계와 법,계맥이 다 무효이며, 자격효력을 상실한 대원불교조계종 도첩이나 계맥을 사용할 시에는 대원불교조계종단 차원에서 민형사상 모든 법적책임을 물을 것을 미리 예고하는 바이다.

응화세존 3048년 불기2565년 12월 1일

(사)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
종정 도정 정산 석청봉 화남 (직)010-4848-0056
문의전화 010-4162-2900 총무원장 석 지혜 합장.